

농촌교회 복지선교 현장 이야기

<특집좌담>

일 시 : 2009년 4월 28일 오후 1:00-4:00

장 소 : 대전 대덕교회 소회의실

참석자 : 김정운 목사 (천안 광덕교회)

박승규 목사 (해남 신기교회)

홍기술 목사 (나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자 : 한경호 목사 (본지 편집위원장, 횡성영락교회)

한: 만나 뵈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선교, 특별히 농촌교회 현장에서 복지선교에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세 분 목사님을 모시고 농촌교회의 복지선교에 대한 현황도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농촌선교에 임할 수 있을까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세 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시사와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현장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구요, 지금까지 해 온 결과,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복지분야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자신이 하고 있는 복지선교의 영역에 있어 정부는 어떤 정책으로 임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복지사업이 선교와 농촌교회의 성장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복지선교에 대한 신학적 입장과 신앙고백, 이 복지선교를 해오는 동안 교회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반응과 입장을 가져왔는지에 대해, 그리고 농촌 목회자들에게 복지선교에 대해 바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각 현장의 이야기부터 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운 목사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김: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은 면소재지(천안시 광덕면)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나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학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3년 전 처음 부임할 때부터 청소년들을 위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교회에 공간이 없었어요. 다행히 복지관을 새로 지어서 공간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에는 아이들이 별로 없지만 있다고 해도 대부분 편부, 편모, 조부모, 결손가정,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지도가 더 필요합니다. 저희 경우엔, 처음에는 공부방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되어 아이들이 36명쯤 되고, 중고등학생들은 10여명이 매일 방과 후부터 저녁시간까지 이용하고 방학 중에는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담교사 3명, 식사도우미 1명, 기업 및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정은 3년 전부터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국가지원이 월 200만원 정도, 아동 1인당 매일 3,500원의 급식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기업, 개인 및 운영위원들의 후원회비를 통해서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한: 나주 다문화가족센터의 홍기슬 목사님은 어떠신지요?

홍: 저희는 나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3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약 250명입니다. 나주지역에 외국인 주부들이 많은 데 400여명 됩니다. 그 중 통일교에서 시집 온 사람

들은 많지만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주로 일본인들이지요.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아예 다른 단체를 구성했습니다. 나주시에 두 개의 단체가 생겨난 셈이지요.

정부지원을 받고 있고, 현재 상시적으로 5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 월, 목요일 오전 10-12시까지 하루 2시간씩 공부합니다. 한글공부도 하고, 상담도 하고, 요리도 배우고, 예절교육도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센터 당 3억 7천만원의 지원금이 나와요 (현재 전국에 100개의 센터). 액수는 많은 것 같은데 실제 사용하다 보면 부족합니다.

요새 센터에 나오는 외국주부를 나라별로 보면, 필리핀,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이고 중국은 한족이 많이 들어옵니다. 조선족은 이미 많이 들어와 버렸죠.

한: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교회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 그랬지요. 2002년 가을부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잔치를 벌여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자기들끼리 만나면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랑방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면사무소 문화방에 모아서 한글교육을 했습니다. 교회가 비좁고, 또 교회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시부모나 가족들이)이 있어서 면사무소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나주시 전체로 확대가 되었지요.

한: 처음에 오라고 했을 때 잘 오던가요?

홍: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마을 이장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의 가정 형편을 알게 되고 공사(公私)간에 방문하는 기회도 많았지요. 어떤 일본 여성은 한글이 서툴러서 그럴 때는 이런 말을 쓴다고 가르쳐 주었더니, “이장님, 저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때 “아, 바로 이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이장 정도 하시려면 마을 사람들의 신임이 있었다는 말씀인데, 원래 그 지역 출신인가요?

홍: 예, 거기가 제 고향입니다.

박: 예, 저도 이장이 되고 싶은 것이 목표입니다(웃음). 저희 교회는 면소재지도 아니고, 소외된 지역으로 관공서나 학교, 학원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했다가 보다는 어떻게 이들을 도울 것인가를 생각했었습니다. 관(官)에 물어보면, 먼저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면서 숫자부터 따집니다. 당신 교회에 지원을 해야 한다면, 해남지역에 몇 백개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하자!”고 생각하고 게이트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10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도(道)대회에 출전해서 16강까지 올라가서 야단났었습니다. 게이트볼장 하면서 일주일에 한번씩 급식을 했는데 지금은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년 되었지요. 주간보호센터가 해남에 두 곳 밖에 없는 데, 우리가 하게 된 겁니다.

한: 주간보호센터요?



사회보는 한경호 목사(좌)와 신기교회의 박승규 목사(우)

박: 노인주간보호센터인데 어린이집처럼 차량으로 모셔 오고 오후에 모셔다드립니다.

한: 프로그램은요?

박: 물리치료, 목욕봉사, 이·미용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대상자에게 얼마나 편하고 적합한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같은 면(面) 사람들만 이용하니까 서로 아는 얼굴들이라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잘 사는데 자식들에게 부탁해서 이런 것 좀 해 와라 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구요.

처음에는 반찬배달도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관(官)에서 하게 되어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관에 도와달라고 해도 별 소용이 없었지요. 그래서 관공서 지원이 안되는 부분을 교회라는 장점을 살려서 할 일들을 찾았지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섬김과 나눔, 지역노인들을 섬기는 일에 목회자 한 사람이 아니라 교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가끔 후배 목회자들이나 관심이 있어 찾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떤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딱 시설이 나오느냐를 물어보는 데, 사실 그런 방법은 없지요. 어려운 사람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교회가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겁니다.

한: 예, 노인선교에 관련한 현장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청소년들 선교의 경우엔 아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나요?

김: 저희 같은 경우엔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방과 후 시간이 다르지만,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센터에 오면 선생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숙제지도, 일기쓰기를 진행하고요, 요일별로는 미술치료, 한문교실, 음악지도, 영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한 행사에 당첨되어 200권의 도서를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교사가 파견되어 매 주일 독서 프로그램과 지도를 하는데 지난 수요일 협정식을 가졌습니다. 천안지역에만 70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우리 센터가 지원을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놀토(격주 쉬는 토요일)에는 기업후원을 받아 견학, 나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방학 중에는 3박 4일 일정으로 캠프도 하고 자체적으로나 연합으로 역사기행, 도시체험, 영화, 연극관람 등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지켜본 바로는 도시 아이들보다 더 다양한 체험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아주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군요.

김: 농촌 아이들이 어디서 이런 경험을 해 보겠습니까? 방과 후 대부분의 농촌 아이들이 방치되는 데 저녁까지 먹여 보내 주니 성장 관리, 교육지원, 문화 체험 면에서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허가 받은 기관이 현재 3천여 개 되는데 농촌지역에는 지역아동센터가 많지 않습니다. 도시보다도 농촌에 더 필요하구요,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 처음 시작하실 때, 세 곳 현장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교회에서 지역사회의 필요를 따라 도움을 주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엔 정부지원도 받게 되고 점차 커지고 발전하게 된 것이죠? 광덕교회의 경우엔, 자체적으로 처음 시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청소년 공부방이었나요?

김: 그렇죠. 저희는 먼 소재지에 있는 작은교회라 교회에 공간이 없었어요. 교인들의 인식도 문제였구요. 열린교회를 지향하면서 경로잔치 등을 통해 먼저 교인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공간이 준비되어 시작하게 되었는데 2층으로 확장되고, 청소년 독서실이 되고, 이어서 공부방으로 운영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7년을 해오다가 4년 전에 보건복지부 기관으로 등록되어 ‘광덕푸른지역 아동센터’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흥 목사님 경우엔 어떻습니까?

흥: 저는 2000년도부터 이장을 했는데, 제가 이것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교회차를 운전하고 가는 데, 조선족 여자가 울고 오더라구요. 그래서 태워주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남편이 폭력을 휘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교회에 데려가서 남편이 찾아올 때까지 가지 말라며 보호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맨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조선족 여인이었지만, 처음엔 설교 듣는 것도 어려워하고 머리 아파하더라구요.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이해하면서 들으려니 힘들어서 교회도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따로 모이게 해서 지도해야 되겠다 싶어 한글공부도 하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죠.

한: 몇 년쯤 교회에서 하셨나요?

흥: 1년 남짓 했구요, 면사무소에 나가서 한 것까지 합하면 4년 정도 했습니다. 처음엔 시찰회에 나가서 내가 이런 일을 하니 좀 도와달라고 해서 지원도 받았고 또 노회 지원도 받았습니다.

한: 박 목사님의 경우는 처음 어떤 프로그램을 시작했나요?

박: 제가 지금 교회에 시무한 지 14년 되었는데요, 단독목회를 나가서 처음에는 지역사회에 관심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습니다. 농목에 나가서 보니까, 다른 선배님들이 그 당시 공동체나 생명농업 쪽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목회를 하셔서 농사 경험도 없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까 하다가 게이트볼장과 지역아동센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목회자 사례비도 못 드릴 형편이었기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교회가 미자립이었습니까?

박: 미자립은 아니었지만 무슨 일을 할 재정은 없었지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선교헌금을 좀 하자고 했지요. 한 달에 한번씩 1만원 정도만 하면 20명이면 20만원 정도 되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 목포와 용인의 두 도시교회를 찾아가서 부탁도 했습니다.

지원 좀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더라구요.

한: 게이트볼장부터 하신 거네요. 지역분들이 좋아하시던가요?

박: 저희 교회가 땅이 있었어요. 당회를 해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을 좀 하자고 했지요. 그런데 마침, 군의원 선거가 있을 때 뭐 해 줄 것 없냐고 물어 와서 우리에게 운동장이 하나 필요하니 좀 만들어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연말에 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게이트볼장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크게 호응은 없었습니다. 당시엔 운동장에 소금도 안 뿌려 질퍽질퍽하고, 경기하다가 서로 싸우는 민망한 일도 종종 있었구요(웃음). 지금은 규칙을 잘 아니까 그런 일은 없고 교인들보다는 교인 아닌 분들이 더 많습니다.

한: 예, 요새 농촌이 노인들 중심의 사회가 되었는데요,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흥 목사님의 경우엔, 처음에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위해 잔치자리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장 신분이라는 것도 있었겠지만 부모들 중에 혹시 안 보내려는 분들은 없었습니까?

홍: 그런 분들은 없었고 말리는 집들도 없었습니다. 이장이라는 직책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제가 이장 일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농촌이나 어촌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으로도 농촌에서 보탬이 되구요. 싫어도 이장 입장에서 가면 저분들이 거절을 못 합니다. 행정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거죠.

한: 주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홍: 좋았습니다.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이전에만 해도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한: 처음에 발생한 중요한 문제는 뭐가 있었습니까?

홍: 폭력문제, 시부모와의(고부간의) 갈등이 문제였지요. 또 무엇보다 외국인 주부들은 처음에 시선을 주목받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주민들은 대체로 협조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결국은 다 동생이고, 조카고 가족친지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이죠. 그 집에

대해 잘해 주니까 다른 집까지 파급효과가 생겼습니다.

한: 청소년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는 교회나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김: 농촌이 노인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부모 외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꾸준히 하면서 점차 발전되고 알려지니까 인식도 달라지고 반응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한: 그런데, 게이트볼을 하게 되면 대부분 남자들이 많지 않나요? 그로 인해 여성들이 좀 소외되지 않습니까?

박: 면소재지 정도면 게이트볼 할 여성노인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엔 그런 나이면 일하러 나가지요. 있다고 해도 처음엔 게이트볼하면 남의 시선을 받게 되고 일을 안 하게 된다는 걱정을 했었는데,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더라고요. 오히려 가정적으로도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의 경우에도 처음엔 농사에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도 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할 건 다 하면서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화투치고 술 먹고 그렇게 보내는 시간에 게이트볼을 하니깐 건전하게 노는 문화도 형성되구요, 씩씩이도 건전해졌습니다.

한: 무슨 일이든지 처음 시작하려면 난관들이 있는데 게이트볼장 만들 때 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박: 사실 처음 게이트볼장 만들 때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군수가면 단위에 게이트볼장을 하나씩 만들어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너희가 면소재지도 아니면서 만들려고 하느냐, 마을을 분열시키려고 그러느냐면서 면소재지의 노인 분들이 반대했지요. 그래서 게이트볼 하려면 꼭 거기까지 가야하냐, 우리도 여기서 하고 싶다고 했지요. 지금은 마산면 지역에 지역별로 다섯 개가 생겼어요. 한 면에 다섯 개의 게이트볼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아마 전국에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 교회의 공로로 볼 수 있지요. 열심히 하다 보니 군단위에서 우승도 하고, 도대회에도 나가게

되었구요, 지역 주민들도 자신감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폐교 직전까지 갔다가 지금은 오히려 외지에서 많이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초등학교의 경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박: 제가 부임해 가보니 재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 전 해에 수가 너무 줄어들어서 이제 입학생이 없으면 폐교될 위기에 있는 겁니다. 면(面)의 본교로 가든지 읍으로 가든지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했지요.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보내겠다. 내가 농촌에 와서 목회한다는 것이 뭐냐? 학교 경쟁력이 없어서 없앤다면 농촌목회의 의미도 없는 것 아니냐.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싶고 한 사람이라도 보내겠다 했더니, 저쪽으로 갔던 두 사람도 돌아오고, 할머니하고 사는 아이, 저희 아이하고 해서 4명이 시작하게 되었어요. 또 마침 열정적인 선생님 한분이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였고요. 지금은 55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한: 네, 그렇게 한 학교를 살렸군요 자, 그러면 해 오신 일들을 즉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처음의 동기는 뭔가 이 지역을 위해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이들이 방치되고 노인들을 돌보는 사람도 없고, 결혼이민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목회자로서 사랑과 연민의 정을 가지고 시작하셨을텐데요 그렇게 해 오시다 이제는 나름대로의 신앙고백과 신학적인 생각들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홍: 지금은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처음에는 '외국인 주부'라고 불렀지요. 이 분들의 생활이 처음엔 참 어려웠어요. 외국에서 들어와 결혼만 하고 방치해 버리는 상태니까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집에서는 남편이나 시어머니와 말이 안 통하고, 문화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정말 인간적으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했더니 따라오더라구요. 물론 선교도, 전도도 목적이지만 인간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일단은 따라오게 되는 거죠.

한: 이 일을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말씀의 근거나 성경적 근거도 갖게 되었을 텐데요.

홍: 예,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내용은 신학하면서도 은혜를 받았지만, 특별히 이 일을 하게 되면서 다른 이들이 외면하는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이 외국인 여성들을 돕고 치료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으로 접근했어요. 우리 딸이 외국에 시집갔을 때 누군가 손잡아 줄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마음으로 했지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나를 '아빠'라고 불러요.

한: 예, 목사님께 아버지다운 푸근한 사랑을 느낀 것 같습니다. 박 목사님의 경우엔 어떻습니까?

박: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경우 박사학위를 받고 큰 교회에 갈만한 위인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실력은 그렇게 안 되어도 열정만큼은 뒤지지 않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목회적인 일이 어떤 것일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꼭 큰 복지관 운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 그것은 말이나 생각에 있지 않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하나님 나라를 현실 속에서 구현한다고 할 때 어떤 것일까를 생각했다는 말이죠?

박: 제 생각에는 도시목회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농촌, 소외된 자리에서 하나님은 미래를 잉태시켜 놓고 있다고 봅니다. 땅 값도 오르지 않고 떠날 사람은 다 떠나고 나이든 노인네들만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배려가 있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뭔가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역을 행복한 삶의 현장으로, 그런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교인이든 비교인이든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뭔가 하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동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생협과 연결해서 고사리 축제를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기대를 계속 꺾었습니다. 이것이 돈 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일로 말미암아 마을을 회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면, 그것이 보람있는 삶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사랑을 나누고, 에너지를 나누다 보면, 지역도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하는 데 있어 이기적이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는 세상. 우리가 아이들 포함해서 500여명 정도 되지만, 그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그런 구조와 삶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허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완성되지는 않았어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 보되, 교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이 함께 공동체로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덕교회의 경우엔 지금까지 해 오면서 청소년 복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오셨지만, 목회자로서 가진 생각은 어떤 것이었나요?

김: 신학교 때 ‘농촌선교연구회’ 활동도 하고 이후 농목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예산에서 한 3년 목회했었고, 그 후 다시 도시로 나와 부교역자를 하다가 만 3년을 채우고, 다시 농촌지역인 광덕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와 보니 농촌지역인데 교인이 60-70명 되고 또 도·농복합지역이었습니다. 천안 시내도 가까워서 직장인도 창사하시는 분들도 있었구요. 그 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좋아하신 곳이 ‘갈릴리’였지 않느냐, 또 민중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 구약의 ‘하비루’

신약의 ‘오클로스’는 농민, 노동자가 아니냐, 사회선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목회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인이나 주민을 선교대상으로 보면 실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도나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10여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돌아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큼니다. 예를 들면, 복지관을 얻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역에 민간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역만 해도 열 몇개가 있어요. 건물을 지을 때부터 “저희는 교회공간이 없으니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우리 공간입니다” 기도했더니 정말 현실로 이루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한: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요. 그동안 일을 해오면서 체험한 것을 성경말씀으로 고백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지선교분야에 어떤 성과나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요, 함께 나눠볼까요?

홍: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성경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정부지원을 받는 단체에서는 종교활동을 못한다고 자꾸 공무원들이 간섭을 하더라구요. 물론 그동안 통일교를 다녔던 필리핀 사람 5쌍이 교회에 나오긴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이들을 아동부에 맡기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교쪽으로 점점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노회에서 외국인주부 전담목사로 세웠고, 노회에서 월급도 받는데, 표면적인 성과가 없잖아요.

한: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성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홍: 물론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은연중에 복음의 영향을 받았을 줄로 압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주시내의 400여명의 외국인 주부들을 규합하고 이끌 수 있는 여력이 생겼구요. 그 다음 우리 센터에서 24명이 찾아가는 서비스 활동을 합니다. 그 활동에 농촌교회 사모님들을 많이 선발, 추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가는데, 사모님들이 가서 봉사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심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선교적인 효과도 있다는 거지요. 유급 선생님도 3명 있습니다. 불교 여신도 회장도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도 교회 나오라는 말 안했는데 얼마 안 되어 교회에 나와 세례까지 받았 습니다.

한: 참여한 외국인 주부들 가운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났다든가 이전보다 향상된 삶을 누리게 된 사례는 없나요?

홍: 필리핀 여성들 같은 경우엔 영어를 잘 하니까 학교에 소개를 해 연결해 줘서 원어민강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지 요. 그러면 적어도 백만원 이상 받으니까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됐지 요. 남편들이 대개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거든요. 또 업체들을 다니면서 ‘씨 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제 명함도 돌렸어요. 지금은 부인들이 취업을 많이 해서 경제적으로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대부분 취업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오거든요. 결혼보다는 취업이 더 중요할 수 있는 데, 결혼 후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가 ‘아빠’로서 역할을 해야 한 거죠(웃음).

박: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은 주로 어디서 일을 하게 되나요?

홍: 주로 간병인으로 활동하고 요새는 오리를 손질해 살과 뼈를 가르는 가공업체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 보내 면 착취를 당해요. 중간에서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박: 한번 취업하면 지속적으로 합니까? 요즘 주변에 다문화가정이 많거든요. 일주일이나 몇 개월 하다가 말고 그런데도 있더군요.

홍: 어떤 사업장인지를 잘 봐야 합니다. 주문을 받아서 가내수공업 식으로 하는 데는 정말 몇 개월 하다 말아요. 그러니까 성수기 때만 하고 비수기때는 못하는 거지요.

박: 백만원 정도 벌려면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홍: 저희 집에 기거하는 사람이 3명 있어요. 아침 8시까지 출근인데 7시 20분까지 데리러 오죠. 저녁 7시까지 일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거의 12시간을 해요. 요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 거죠. 필리핀 사람들 중에는 노인병원에서 간병인이나 간병 보조 일을 하기도 합니다. 노동부에서 채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있더군요. 노동부에서 90만원을 주고 병원에서 또 얼마주고 합니다. 우리가 노동 조건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곤란해 질 수가 있습니다.

한: 그러니까 목사님이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서 신원보증을 해 줄뿐 아니라 노동법적으로도 은연중에 업주들에게 함부로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군요.

홍: 그렇지요.

한: 예,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는데, 목사님 개인적인 불만은 종교적으로 드러내 놓고 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 저희 센터에서 두 가지 점은 꼭 합니다. 한 가지는 정부지원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집을 헐고 이층으로 세워서 형편이 어려워 집에서 나온 친구들을 위해 - 그런 일이 생기면 꼭 법으로만 해결되지 않거든요 - 불러서 설득도 시키고 남편을 불러 잘못도 지적해 주고 해서 화해시켜주는 일입니다.

한: 아, 그럼 목사님께서 사택을 개방해서, 결혼이민자들 문제가 생기면 숙식도 제공해 주고 하는 겁니까? 네,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시네요.

홍: 네, 그래서 저희 집을 친정집이라고 합니다. 가까이 살다 보니까

가정의 속사정이 파악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예수 믿어라 설교하진 않지만 그들이 아빠, 아빠 하면서 뭔가 얻어가는 것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한: 정말 아버지 노릇을 하시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쉽터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개입해 해결해 주는 일,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해오고 계십니다.

홍: 저희가 56 가정을 돌보아 주었는데, 그 중 50가정은 회복이 돼서 돌아가고 지금은 네 가정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주는 중요한 일입니다. 사업을 해 오시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혹 없었나요? 사역 자체에서 발생하는 힘든 일이 라든가...

홍: 센터 운영하면서 집합교육이나 생활서비스 하는 것은 괜찮은데 집에 수용하면서 일을 하다보니까, ‘안티 홍기술 세력’이 생겨요?

한: 안티 홍기술이요?

홍: 네, 왜냐하면 마을에 좀 반대하는 친구가 있어요. 3년째 되던 해에 건강센터라는 곳에서 자기들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저보고 하라는 합니다. 그래서 한글교실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한테 줄 인건비를 잘라 먹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화가 나서 책임자에게 말을 했더니 자기 돈으로 주더라구요. 그 사람들은 퇴직금도 못 받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지요. 이 사람들이 ‘안티 홍기술’이 됐습니다. 홍기술은 외국인과 같이 동거한다 뭐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한: 좋은 일 하면서 의심받고, 이런 게 사실 힘들지요.

박: 남편이 쫓아오고 그런 건 없습니까?

홍: 해남에 사는 어떤 남편은 저녁에 전화를 해요. 잘 만하면 꼭 전화를 해서 ‘내 마누라 내봐라’고 전화를 하죠(웃음). 그러면 언제까지 찾으러 안 오면 내 마누라 한다고 하면서 내용증명을 해주죠. 어떤 몽골 부인은 도저히 안 되겠기에 제가 돈을 주면서 몽골로 가라고

했는데 이 남편이 계속 전화를 하는 겁니다.

한: 예,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광덕교회의 경우엔 성과나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 저는 성격이 좀 공격적이라 그런지 일을 크게 터뜨려 나가는 편입니다. 초창기에 교인들은 재정도 없지, 인력도 없지, 농촌교회에서 경로잔치나 하면 되지 꼭 그런 걸 해야 하는가 했어요. 또 결과를 많이 따지죠. 경로잔치를 하고 나면 몇 명이 나왔는지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10년 쯤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능동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엔 공기관인데 마을 주민들은 왜 그것을 교회에서 쓰느냐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자식들, 자기들 일임에도 불구하고 괜히 교회라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공간을 좀 달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려오구요, 면소재지에 있는 학원에서는 영리 목적이니까 우리 센터에 사람을 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가 3개이고 거기다 다른 지역의 자녀들도 오고 싶어 해서 대기 중인 아이들이 10여명 됩니다. 어떤 할머니는 아들이 이혼한 자기 손자를 데리고 와서 넣어달라고 하는데 정말 보호해 주어야 할 아이이지만 정원이 36명이고, 거기에다 교사들, 자원봉사자들까지 하면 공간이 도저히 부족해서 못 받아 주고 있습니다.

한: 그 지역엔 교회가 없나요?

김: 있는 데 마땅히 공간이 없고, 지금은 또 구비조건을 다 갖춰야 하니까요 시골교회에서 쉽지 않지요.

한: 그러니까 수용해야 할 아이들은 많은데 시설이 좋아서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라는 말씀입니다.

김: 그나마 저희 경우엔 운영이 잘 되는 편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것 가지고는 운영비도 안 되지만, 교회에서 후원하고 기업체와 개인적인 후원을 통해 재정적으로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박: 청소년센터는 지원을 못 받으니까?

김: 신청하라고 했었지요. 그것도 쉽지 않은 게 밤 10시까지 지도교사가 필요한데 시골에서 그 시간까지 근무할 사람이 있나요?.

한: 지역아동센터에 출입하는 아이들의 경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동들의 인격발달이나 학습이나 생활 모습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김: 먼저, 건강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간식, 저녁식사 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급식 계획표를 짜서 제공하거든요.

한: 급식과 식사를 통해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김: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구요, 숙제도 잘 합니다. 실제적으로 아이들은 학교 갔다와서 가방 던져놓으면 끝이잖아요. 학습성취도 면에서도 도움이 되지요. 또 시골에서 자라면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업성취도도 굉장히 향상되고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다양한 문화적 체험, 그리고 견문을 넓혀 인성 개발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김: 그렇죠. 그리고 공동체성도 많이 향상되는 것을 봅니다. 청소, 집단놀이 등 센터를 통해 하나가 되는 훈련이 이루어지니까요.

한: 네,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눈에 띄게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행정적으로나 또 발생하는 문제는 없었습니까?

김: 무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그래서 교사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학원 같은 경우엔 돈 내고 가니까 강제로라도 부모들이 보내지만, 센터는 그렇지 않으니깐 처음엔 부모들도 거기가 뭐하는 곳인지, 돈만 받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노는 지 인식이 부족했어요. 지금은 규정에 의해 체계적으로 운영되다보니까 그런 인식은 바뀌었습니다.

한: 신기교회의 경우엔 성과가 있다면 어떤 성과가 있을까요?

박: 처음엔 왔다갔다 했는데, 지금은 14년 정도 되니까 서로 적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96세 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가 와서 저를 끌어안고 우시더라구요. 그 분은 노인주간보호센터를 계속 이용하신 분인데, 센터가 아니었으면 진작 돌아가셨을 겁니다. 집에 계셨어도 일이 손에 잡히시겠어요? 식사를 제대로 하시겠어요? 철따라 미용봉사 해드리고, 밥 해다 드리고 만나기만 하면 어서 오라고 환영해드리니까요. 그것이 그 자녀만의 마음은 아닐 겁니다. 읍에 복지관이 있지만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꼬부랑 할머니는 팔시받기 쉽지요.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램들이 조금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제가 온 뒤로는 이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뭐, 떠날 사람은 이미 다 떠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사실 복지관이랄 것도 없는 규모이지만 노인들에게 자기를 돌보아 주는, 갈 곳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도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그룹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생기니까 우리와 같이 생활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원하면 갈 수도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지요.

이제는 신기교회가 조금 알려졌습니다. 시장에 가도 신기교회 얘기 들었다고 하고, 텔레비전에서도 봤다고 하고, 그러니 교인들도 좋아합니다. 주민들도 과거에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게이트볼장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 아침에 간단히 성경 한 구절 읽고 조회 형식으로 하고, 교회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직원들은 교회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목사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에 붙어 있는 시설이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인이 약 50명쯤 되는데 교인들이 전도를 했다고 보다 노인들 모임이나 학교에서, 게이트볼장에 나왔다가 어느 날 교회에 쓰옥 나와 앉아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하다보니까 주변에서는 “왜 자기만 하는가?” 하는 불만도 있습니다. 노인주간센터까지 차량을 3대 지원받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양보하면 그리로 가느냐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작은 지역사회(읍에서 한 10분 거리임)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으니 체험하고 싶으면 하라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가 소개도 해 줍니다. 저희 교회는 초등학생이 25명, 중고등학생이 10명 나오고 있는데 시골에서 이 정도면 많은 숫자죠. 불교 골수인 부모도 아이들은 교회에 보냅니다. 공동체를 추구하는 데 있어 지역에서도 그런 호응을 한다고 할까요? 귀농하기도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 교회 위상의 변화는 선교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또 주민들에게 활력이 생기고, 공동체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나가고 있다니 뜻있는 성과입니다.

박: 한계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인력 부분입니다. 봉사니까요.

김: 면 전체를 선교지역으로 보면 30개 마을이 있는데 교회가 7개 있습니다. 마을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저희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교회 교인들도 행사가 있으면 같이 참석하게 되고 하니까 괜히 뺏어 오는 것 같아 미안하지요. 또 그 교회 교인들은 우리 교회는 왜 안 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목회자에게 미안해지곤 합니다.

한: 이제 좀 다른 주제를 옮겨갈까요? 세 분이 다 교회에서 시작했지만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부복지정책으로 합류해 들어갔어요.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 종교활동이 제약받고, 감독으로 인한 구속된 분위기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 다문화가정 정책은 지금 과도기입니다. 전국에 100개의 센터가 있다고 하지만 다문화가족센터가 뭔지도 모르고 지원을 받는 단체도 있어요. 또 위탁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영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복지관장이 센터장을 하는 식인데 이런 데는 상담도 제대로 안되고 시간

되면 퇴근해 버리고 하는 식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실효성이 얼마나 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나 염려됩니다.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부예산이 340억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방문도우미 사업의 경우 그냥 사인만 하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최소한 2시간 해주고 와야 하는데 편법이지요. 그렇게 해도 80만원이 지원되거든요.

한: 그것은 정책상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지요. 목사님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 정책에 불만은 없습니까?

홍: 정책보다는 관리 감독이 느슨한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노인분야는 어떻습니까?

박: 작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으로 대부분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은 봉사를 받게 되는데 이전에 받던 분들이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등급 3급 이상을 받아야 하니깐요. 수급자가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떠나시는 분도 있어서 아쉬움이 있지요. 지원을 받다 보니 서로 경쟁적이 되고 불신하게 됩니다. 또 부당청구도 발생하게 되고...

저는 센터나 복지관 등 기관 위주가 아니라 교회가 중심이 되는 복지정책을 해 나가는 것이 농촌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왜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으로 투명해야 하고, 종교적 편향성 문제에 지적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요. 농촌에서 교회가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농촌교회마저 무너지면 힘들 것 같습니다. 교회와 함께 이뤄가는 농촌복지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청소년 복지에서는 정부정책과 관련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김: 자료를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나라, 가난의 대를 끊는 교육기회

가 열려 있는 나라, 빈곤의 늪에 빠지거나 장애가 생겼을 때 진정 힘이 되어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대선공약에 나와 있어요. 또 복지 정책은 '능동적 복지' 라고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능동적 복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능동적 복지는 빈곤과 질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이를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복지정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능동적 복지가 뭔지 모릅니다.

이 정부의 복지정책은 10년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산이 좀 늘어난 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줄어들었구요, 실례를 들면, 작년에 전국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시위하러 갔습니다. “운영비를 올려 달라”는 것이었지요, 작년에 보건가족복지부에서는 급식비를 빼고 600만원이 있어야 청소년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월 45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연말에 417억을 삭감해서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보니까 ‘희망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또 차등화정책을 통해 센터마다 다르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노무현 정부 때보다 증액을 하려다가 못했다는 건가요?

김: 전체 예산은 늘었는데 복지예산은 줄었다는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사회가 좀더 복지사회로 나아가려면 공공책임과 국가책임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 양극화현상이 가속화되지요.

한: 복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과 계층은 어려운 사람들이지요. 도시에 도 있지만 어쨌든 농촌지역에 많으니까 정책적으로 잘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럼, 정부에 바라는 게 운영비 지원인가요?

김: 운영비 지원 증액은 모든 센터의 요구이구요, 농촌청소년들의 경우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학비나 학습비 부담을 공적으로 덜어주어야 농촌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면 단위에 세 곳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에는 공공시설이나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만 농촌지역에는 센터 아니면 전무하니까요. 농촌 지역에 아동센터를 늘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 정부 정책에 대해 또 다른 부분은 없을까요?

홍: 김대중 정부 때 전남 곡성을 동서남북 4개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노인문화, 다문화, 청소년 복지를 한꺼번에 넣어서 추진을 했는데 범위가 좀 넓을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빠진 데가 없고,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박: 복지는 그렇게 나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육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시설도 현대화되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했습니다만 3개 면이 통합되어 학교가 하나 생기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유치하는 면(面)은 좋을지 몰라도 없어진 면에서는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인위적인 분할과 정책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제도적, 인위적이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놓고 정부는 믿고 지원해주는 그런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오늘 좌담회는 작은 농촌교회를 중심으로 복지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보고 “아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선교를 생각하는 농촌목회자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목회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홍: 지난 4월에 호남지역 8개 노회가 모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토론을 했었습니다. 각 지방단체마다 지역센터를 하나씩 지으려는 것이 정부정책인데요, 농어촌에 있는 작은 교회의 목회자와 사모가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심방하고 하면 작은 센터가 되는 겁니다. 정부 지정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한: 그러니까 교회 주변에 결혼이민여성이 있다고 할 때 정부 지원과 관계없이 교회에서 목회자나 사모가 먼저 찾아가서 심방하고, 애

환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문제가 있으면 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아야한다는 말이지요.

홍: 외국어를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소명감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러면 방법도 생기고 길도 열립니다. 언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 1990년 중반부터 사회선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서울 큰 교회들은 사회복지관도 함께 지었지요. 요즘 목회자들도 사회복지 공부 많이 합니다. 저도 지금 3학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교회도 복지선교의 중요한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촌교회는 물적, 인적 자원이 없어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반찬봉사를 노인들이 나와서 하고, 노인대학을 하고 싶어도 인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어려운 농촌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목회자들이 진정성만 갖고 임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적, 인적 제한성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교인이 얼마 없어서 할 일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할 일 없습니다. 교회 문을 활짝 열고 교인, 비교인 구분없이 공동체 구성원으로 함께 간다면 길이 열리리라 믿습니다.

박: 특별히 많은 계획을 가지고 농촌목회를 했다가 보다는 하다 보니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다 보니 교인들도 좋아하고 오는 사람들도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시설이나 갖춘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관(官)과의 관계나 요구에 매달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교인들도 목회자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압니다. 지역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도만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말벗이나 반찬나눔의 일도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렇게 만나다 보면 나 자신부터 은혜를 받게 되구요,

주어진 현실에서 작은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 정부지원을 받지 않

아도 실망하지 않고 그런 유혹을 이겨내고,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보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그렇죠. 노인복지선교의 모델이 될 만한 분으로 강원도 원주에 용석천 목사가 있는데, 그 분이 처음 미자립교회 목회를 하면서 마을을 보니까 독거노인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외로운 분들을 위해 말벗이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 일은 돈 없이도 마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 말벗 되는 일부터 시작하니까 마음 문들이 열리고 점점 도와줄 일이 많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형광등 갈아주고, 전기 스위치 갈아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 크게 도와 줄 일이 생긴 겁니다. 힘이 들어서 인터넷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더니 후원회가 조직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픈 사람이 생겨 그들을 병원에 모시고 다녔고, 나중에는 병원갔다 온 노인들이 홀로 거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분들을 위해 아예 요양원까지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벗이 되어 주다가 그렇게 큰 일까지 하게 된 것을 볼 때, 돈 없다는 생각이나 패배의식부터 갖지 말고 내가 가진 작은 것부터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선교가 성공하면 목사가 상당히 올라갑니다(웃음). 그 때부터는 진짜 조심해야 되지요. 복지는 명예나 지위를 누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낮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니까요. 좌담에 참가한 여러 목사님들이나 독자들 모두 이러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 중심으로 해 나가면 좋은 열매가 맺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農